

速記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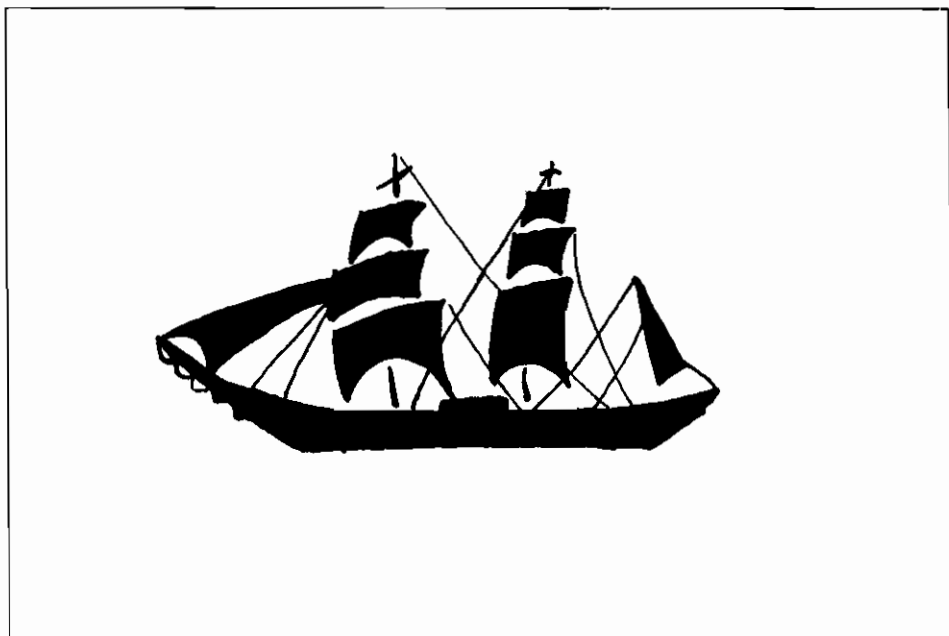
第 25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速記界

第 25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大韓速記協會는 速記人의 總집결체로서 速記文化 學術의 연구 발전 및 보급과 速記인의 資質향상을 도모하여 時代적 使命感에 부응, 記録傳播과 公益에 봉사함으로써 國家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례

- 권두언 / 內實있는 發展을會長·國會議員 朴權欽 · 4
- 에세이 / 하늘의 攝理 김영선 · 6
- 특별기고 / 내가 보는 速記界 金大坤 · 10
- * 달 밤 이호우 · 12
- 다시보는 速記錄②
- 子孫萬代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13

□ 論 壇 □

- 速記實務時 나타나는
- 誤聽 및 誤記의 事例와 그 原因
.....國會速記 3 擔當室 提供 · 16
- 우리나라 速記採點基準과
- INTERSTENO 英語速記採點基準과의 比較
.....國會速記 6 擔當室 提供 · 20

- 번역 / 미국하원의 속기현황 John R.Henterly · 24
-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27
- 放送對談 / 젊은이여, 속기를 배우자 서세원 ; 김점동회원 · 28
- * 속기 요금표 32
- ◆ 한글 바로 띄어 쓰기 / 이렇게 씁시다..... 편집부 · 33
- 속기계 이모저모 설외부 · 34
- 會務日誌 38
- 會費納付案内 38
- 편집후기 39

〈 권두언 〉

內實있는 發展을

會長 · 國會議員 朴 權 欽



會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세모에 바쁘실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李珍雨 國會事務總長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協會 고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바쁜 가운데 지나다가 오늘 이 조출한 送年會의 자리에서 會員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속기협회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을 줄 압니다. 특히 國會 公務員으로 종사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은 제 1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지난 정기국회를 비롯해서 이나라 國政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막중한 史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지난 여름에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 중앙위원회가 체코에서 열렸는데 이 사람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마침 리비아의 공식초청으로 리비아를 다녀와야 될 日程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듭 두 번 外國을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에는 INTERSTENO 總會가 불가리아의 首都 소피아에서 열리게 되지만 그때는 우리 大韓速記協會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하도록 제가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지난 4년간 대한속기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평소에 느끼고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했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情報產業社會라고도 합니다만 그에 따른 사회언어의 다양화 전문화 스피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協會도 속기법식에 대한 부



대한 연구와 改良作業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속기법식의 연구는 물론이요, 각 속기법식 간의 장단점 비교등을 통한 상호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速記需要處의 개발입니다.

한국에서 속기가 實用된 지는 40년 가까운 歷史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속기의 필요성이라든가 편리성 능률성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속기에 대한 인식의 提高를 위해서는 우리 속기협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속기의 수요처가 확대되면 속기인의 서번화대 내지 速記文化의 창달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나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속기협회도 보다 내실있는 협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의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歷史의 기록자요, 증언자라는 사명과 긍지 속에 항상 그렇게 빛나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지만 열심히 일해왔고 또 내년에도 계속 그런 자세로써 일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성실히 기록해 나가는 국정논의의 축적이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과 용기와 신념속에 소원 성취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소원도 꼭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12월 28일, 대한속기협회 송년리셉션에서

하늘의 攝理

김 영 선 (국회 경제과학 위원회)



사람들은 大自然 속에서 하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나 社會의 변동에 적응하여야 안락한 生을 누릴 수 있다. 衣食住 生活은 얼핏 보면 물질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물자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국가의 일도 사람을 잘 만나야 인이 되는 것이다.

人類의 文化는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口傳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시키는 방법의 개발과 비례하여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記錄을 남긴다는 것은 原始時代부터 인간이 지불한 노력의 소산이다. 원시시대에는 돌이나 짐승의 뼈 도자기 등에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고 글자가 만들어지고 종이 발명되고 나서는 종이 위에 쓰거나 인쇄된 것이 기록의 대중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先人들의 저술을 통하여 孔子도 만날 수 있고 플라톤이나 셰익스피어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말을 가지고 의사전달하는 경우 녹음기가 나오기 전에는 保存할 수가 없었으며 녹음이 가능한 현대에도 아직은 말이 제대로 활자화되는 기계는 연구중이다. 일반문자는 빨리 써야 1분간에 70자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데 말은 1분간에 300자가 넘는 속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받아 써서 文字化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點과 線등으로 구성된 符號體系인 속기이며 우리나라도 해방후 우리말 속기가 국회를 비롯하여 언론기관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點과 線의 符號로 모든 말을 적을 수 있는 것은 직선과 곡선을 混用하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배워서 文字의 代用品으로도 쓸 수 있는 일종의 文字體系인 速記文字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의 속도를 따라 쓰도록 고안을 하다 보니 일반문자와 같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이 못 되고 쓴 본인만이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歐美에서는 速記타이프라고 해서 말의 속



도를 따라 찍을 수 있는 符號化된 타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량하고 Computer와 연결하여 기계가 스스로 速記打字符號가 아닌 일반문자로 文章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찍어낸 문장을 인쇄하고 싶으면 穿孔테이프를 自動組版機에 걸면 기계가 組版하여 바로 인쇄물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조판기는 보급되고 있으나 속기타자기는 商業性이 없어서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Computer System이 발달함에 따라 거대한 情報通信産業을 형성하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즉 종이나 필기도구가 없는 사무실, 책이 없는 도서관에서 문자화된 정보의 홍수속에 파묻히게 되어 갈 것이다. 그 정보의 홍수에서 헤쳐 나가기 위하여는 Computer와 연결된 自動檢索裝置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늘에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정보가 1년 뒤에 중요하게 되는 경우 檢索裝置의 KeyWord에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늘의 정보는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정리를 잘못하면 量만 많고 쓸 것은 없게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신문보도·TV·잡지 등 정기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만도 선별능력이 없을 때 사람을 바보로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지엽적인 醫學常識이 건강을 해치며 유명인사의 프로필을 보면 達人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뿐이고 신문 社會面을 보면 90% 정도는 어두운 얘기들이다.

現代文明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개개인의 사람은 사회의 조직에 매몰되어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큰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더 짙어가는 것 같다. 宗教에 의지하는 사람이 느는 것이나 어떤 社會組織의 한 構成員이 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것은 自我喪失의 現狀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똑같은 事物을 보아도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보름달을 보고 슬픈 이



는 눈물을 흘리고 즐거운 이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光化門에서 보면 南大門이 남쪽에 있지만 南山에서 보면 북쪽에 있다. 몇천만원짜리 보석도 그 가치를 모르는 이는 그저 예쁜 돌조각일뿐인 것이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회인데 현대문명은 이를 획일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대자연과 자신을 一貫하는 道를 밝히려고 학문을 했고 현대의 지식전달 위주의 공부와는 달리 심신을 수양하고 삶의 지혜를 기르는 데 공부의 역점을 두었다. 끊임없이 變轉하는 자연 내지 우주의 움직임에는 불변의 법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인간의 삶도 아무리 불규칙한 것같이 보여도 어떤 법칙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을 天地의 道라 하였다. 이 변전하는 현실과 불변의 법칙을 가장 쉽게 추상적으로 부호화 했다는 것이 周易의 64 卦이다. 이것은 伏羲氏가 남겼다고 하는데 이 陰陽의 原理, 요즈음 표현으로 말하면 相對性原理! 2진법에 基한 6개의 爻가 모여 64개의 卦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우주와 인간의 변화에 대한 법칙성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후 周나라 文王이 이것을 일반인이 잘 모를 것같이 각 卦마다 卦辭를 지어 첨부했다고 하며 그 卦의 뜻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文王의 아들 周公이 각 卦마다 爻辭를 지어 보충설명을 했고 孔子가 그 뜻을 더욱 알기 쉽도록 할 필요를 느껴 10 翼을 추가했다는 것이 지금의 周易이다. 얼마나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卦像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수년을 읽고도 모를 수 있으나 나름대로 알 만큼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周易에서 가르치는 것은 陰陽의 消長을 表象하여 事物이 궁극에 達하면 變化하고 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발전을 꾀한다고 가르치며 역사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時流에 말리지 말고 誠心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깨끗한 의지가 생기며 思考를 단 순화시킬수록 실수가 적다. 어떤 일이든지 選擇에는 肯定과 否定뿐이요



진행 과정에는 誠實(성실)이 아니겠는가. 요즈음 만능으로 보이는 Computer도 기본원리는 ON과 OFF 즉 2진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으며 발전이 빠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쉽게 들뜨고 쉽게 휘말리는 풍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는 동양의 옛 지혜가 활용되어야 할 것 같다. 분석적으로 事物(사물)을 파악하는 思考(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역사적 實務(실무)를 그려칠 수 있으며 개괄적으로 직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도 필요한 것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속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천천히 가되 옳은 방향으로만 간다면 허둥대며 뛰는 이보다 더 빨리 필요한 곳까지 갈 것이다.



삶은 선택을 허락치 않는 것이다. 살 수 있으면 살고 살 수 없으면 마는 것이 삶이 아니다. 좋아도 살고 싫어도 사는 것이다. 살 수 있어도 살 수 없어도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다.

생명이라 하지 않던가. 생(生)은 명(命)이다. 살라라 하는 명령이다.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마는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살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 삶이다. 내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라는 그 절박 명령이 나를 낳은 것이다. —함석헌, 「절망 속의 희망」중에서—

내가 보는 速記界

金 大 坤

(東亞日報社新東亞部記者)



업무상 속기사와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월간 「新東亞」는 좌담회 대담 토론 등을 거의 매달 1편 이상씩 게재하는데, 그때마다 속기사들의 신세를 지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의 경우 「新東亞」처럼 속기계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분의 경우 게재되는 기사의 양이 작은 탓일지, 그리고 다른 잡지의 경우는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랍문 「新東亞」에 근무하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속기계와 밀접해진 것은 사실하다.

「新東亞」가 속기계와 계속 인연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빠르고 정확한 데다 자세하기 때문이다. 나도 급한 때면 녹음기의 힘을 빌어 직접 좌담회를 푸는 경우가 있지만, 그 때마다 느끼는 게 말하는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재생이 힘들다는 점이다. 그런데 속기복을 받아보면 빠르고 정확한 뿐 아니라 그 자세함에 놀라게 된다.

사실 내 경우 속기사와 접하면서 놀란 게 여러가지 있다. 첫번째가 일단 신기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입사후 속기하는 것을 처음 보면서 느낀 「신기함」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렁이같은 이상한 부호를 그려(?)가는데, 저것이 나중에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될지 영 비답지가 못했다. 「정확하게 잘 좀 해주세요」하고 몇번 부탁까지 했는데,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속기사의 눈길에 기억된다.

두번째가 앞서 말한 정확성이다. 지렁이를 그리는(?) 손의 속도가 말하는 사람의 속도에 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같지도 않고 그저 느적거리는 인상이었는데, 나중에 원고를 보니 정말 입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재생돼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세번째 놀란 것은 속기사의 해박한 지식이었다. 「新東亞」의 경우만 해도 전

문용어나 특수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 어느 경우 말하는 사람이 즉석에서 만드는 造語까지 있다 - 나도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속기를 단순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게는 작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속기가 결코 손가락 끝의 기능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초에 잘 아는 속기계 친구로부터 속기협회의 잡지를 보고 네번째 놀랐다. 속기협회가 그런 잡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었음은 물론, 한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서 속기가 단순한 기능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의 이름은 잊었지만, 해방직후 美軍政치하의 立法議院 시절부터 속기를 해온 분의 인터뷰기사였는데, 그 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日帝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서 광분하던 그 때 한글속기를 연구했고, 그 결과 해방 직후부터 속기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다운 민족정신, 애국이란 게 이런 면에서도 발휘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선배들에 의해 자리가 잡힌 속기계의 긍지가 어떠할까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의 속기계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다섯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속기가 이런 전통과 또 쉽게 성취할 수 없는 특수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고, 또 속기사 스스로도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여성지는 속기를 「학력에 관계없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물론 그것은 일면 맞는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종 학술세미나나 전문토론회에서도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력이 바로 그런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기가 말을 속기부호로 바꾸는 단순한 기능만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었다.

사실 속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탓도 있겠지만, 속기인들이 스스로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반문도 나오게 만드나. 과분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속기사는 현대의 「史官」이다. 옛날과 달리 사관의 역할을 하는 직종이 많아졌지만, 속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높다. 그런데 모든 속기사가 사관의 긍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사

草의 하나인 國會速記錄이 「손을 타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판에 사관의 금지만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의 떡만을 크게 보는 것같은 태도는 그리 온당한 것이 아닌 성싶다. 자기 떡도 남이 보기에 작지 않기 때문이다. 속기계의 발진을 본다.

달 밤

이 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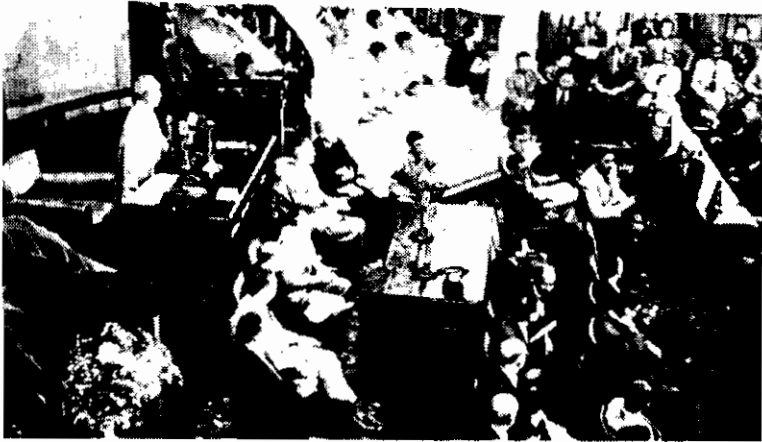
낙동강 밑 나루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꿈빛 노을에 배를 맡기 봅니다.

낮익은 풍경이되 달 아래 고쳐 보니
돌아올 기약없는 먼 길이나 떠나온 듯,
뒤지는 들과 산들이 돌아돌아 씩니다.

아름한 그림속에 정화된 초가집을
한머니 조웅전(趙雄傳)에 잠들던 그날 밤도
한머진 율(律) 지으시고 달이 맑았더이다.

미움도 더러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운 세상 쉬는 숨결 한 갈래로 맑습니다.
차라리 외로울망정 이 밤 더더 세소서.

子孫萬代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던 날

姜 駿 遠



1948년 5월 31일! 그 날의 감격은 내 생애에 있어서 설대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속기술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날이 올 것을 기약하며 우리말 속기연구에 결코 게으르지 않던 한국속기학회의 회원들!

몸매에도 잊을 수 없는 해방을 맞고도 3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국회가 개원되던 날, 내가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첫 영광을 차지하게 될 줄이야! 상오 10시 20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자 한 자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나는 가슴 속에서 치미는 뜨거운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李允榮의원의 기도에 따라 나도 기도를 드렸다. 우리의 속기여,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라고!

우리 속기인들은 그때 모두 건국의 역군임을 자부했었고 누가 세워 주지는 않았어도 마치 원계관을 쓴 것만 같았었다.

禮記四二八一年 五月 三十一日 (月) 上午 十時

(上午 十時二十分 開議)

一前 略一

— (國會選舉委員長人事의 件)—

○ 國會選舉委員長 (盧鎮高) 高貴하신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세가 人事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國會選舉委員會는 選舉에 대한 責任을 가지고 選舉法에 依支해서 選舉를 實施해 왔고 5月10日 總選舉에서는 200 選舉區中에서 198 名이 當選이 되어서 여러분이 國民의 選舉로서 國會議員의 當選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國會議員은 決定되었으나 아직 國會가 成立이 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國會召集에 대한 權限所在가 定해 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國會選舉委員會로서는 우리가 關係할 性質이 아니지만 不得已 할수 없이 召集에 대하여 斡旋하게 되었고 同時에 日字와 場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더니 여러분이 參席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感謝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意見으로서 國會가 成立하게 된 것을 크게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人事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

— (臨時議長推薦의 件)—

○ 國會選舉委員長 (盧鎮高) 順序에 依支해서 臨時議長을 推薦하게 되는데 議員 가운데에서 最高年長이 되시는 李承晚博士를 臨時議長으로 推薦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議員一同 박수)

그러면 臨時議長은 決定되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오나 李承晚博士께서 就任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承晚議員 議長席에 登壇, 일동 박수)

○ 臨時議長 (李承晚) 大韓民國 獨立民主國 第一次會議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感謝해야 할 것입니다. 宗教 思想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오늘을 當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誠心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感謝를 드릴터인데 李允榮議員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祈禱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允榮議員기도 (一同起立) —

이 宇宙와 萬物을 創造하시고 人間의 歷史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民族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祝福하셔서 感謝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誠心으로 感謝하나이다.

오랜 時日 동안 이 民族의 苦痛과 呼訴를 들으시사 正義의 칼을 빼시 日帝의 暴力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世界萬邦의 良心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民族의 念願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歷史的 歡喜의 날을 이 時間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世界萬邦에 顯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民族의 어려운 苦痛과 羞恥를 伸冤하여 주시고 우리 民族 우리 同胞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祈禱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願치 아니한 民生의 塗炭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惡魔의 權勢가 擴大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榮光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願컨대 우리 朝鮮獨立과 함께 南北統一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民生의 福樂과 아울러 世界平和를 許諾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依支하여 저희들은 뭉스럼게 擇함을 입어 가지고 끝자 그대로 民族의 代表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責任이 重大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眞實로 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 智와 勇과 모든 德의 根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要素를 저희들이 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國會가 成立이 되어서 우리 民族의 念願이 되는, 모든 世界萬邦이 注視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問題가 원만히 解決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完全自治獨立이 이 땅에 오며 子孫萬代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저희들이 定하는 이 事業을 完遂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會議을 비회하시는 議長으로부터 모든 우리 議員一同에게 健康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良心의 正義와 威信을 가지고 이 業務를 完遂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祈禱하나이다.

歷史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歡喜와 우리의 感激에 넘치는 이 民族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榮光과 感謝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祈禱하나이다. 아멘.

速記實務時 나타나는

誤聽 및 誤記의 事例와 그 原因

國會速記 3 擔當室 提供
정리 ; 曹 永 琦

1. 머리말

速記時的 “誤聽” 이란 함은 速記를 함에 있어서 發言者의 意圖와 다른 뜻으로 알아 들은 현상이고, “誤記” 라 함은 誤聽을 했을 때나 誤聽을 하지 않더라도 速記文字를 잘못 쓰는 것을 말한다.

速記를 할 때 誤聽을 하면 誤記를 하게 되어 그것은 결국 會議錄上에 誤記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速記時的 誤聽과 誤記는 速記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100%에 가까운 會議錄·發刊에 조그마한 보낸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誤聽과 誤記의 原因과 事例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誤聽 및 誤記의 原因과 事例

一般的으로 速記하는 과정을 細分해 보면 發言者가 音聲이라는 意思傳達媒體로 행한 發言을, 速記士는 귀

로 듣고 머리로 認知함과 동시에 손으로 速記文字化하여 記錄하게 된다. (그림 參照)

이러한 과정에서 誤聽이 發生하는 原因을 整理해 보면 速記士의 問題, 發言者의 問題, 傳達媒體의 速度 및 使用用語, 其他 環境의 要因 등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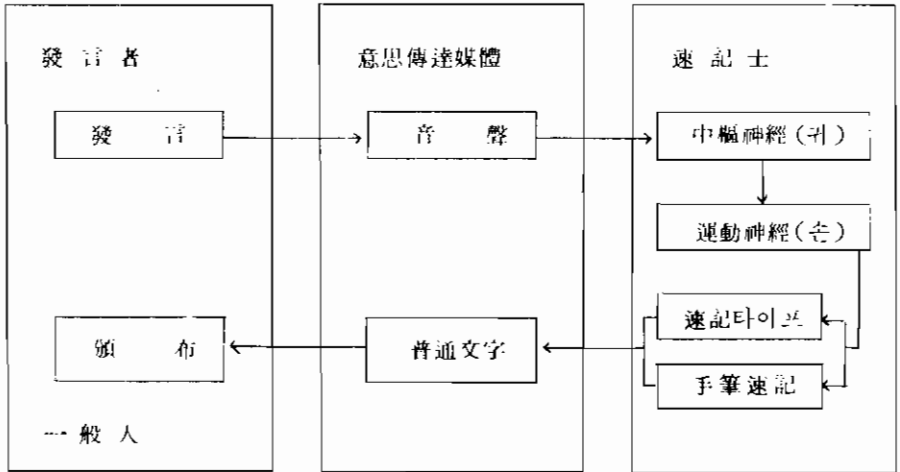
가. 速記士의 聽取力 및 能力 問題

歴史的으로 議會制度和 民主主義 發展에 先導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英國에 “世1에서 가장 公平한 것은 國王과 議長과 裁判官과 速記士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速記의 證據力과 正確性を 나타낸 代表的인 表現으로 速記士는 모름지기 유능한 速記述과 풍부한 經驗, 넓은 常識과 명석한 頭腦, 文章力 具備 등의 다양한 資質과 教養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想起시킨다.

아 물론 誤聽과 誤記의 原因中 速記

〈그림〉

一般의인 速記過程



士에 관계되는 要因으로는 첫째, 各種 專門用語와 新造語 등의 未解得, 文脈上 알맞는 語彙 驅使能力, 速記術의 鍊磨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持續的인 노력으로 거의 解消되고 있다.

둘째, 會期中の 集中的 激務로 인한 速記士의 누적된 피로는 集中力을 저하시켜 誤聽 및 誤記의 發生要因이 될 수 있다.

나. 發音의 不正確性

다음은 發言者에 관계된 誤聽, 誤記의 原因으로 사투리 사용, 外國語와 外來語의 지나친 사용과 發音上의 문제, 不正確한 發音 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例 1); 사투리

○ 되들 이렇거나 저렇거나 도리 없기 땀새 (모두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도리가 없기 때문에)

○ 이것을 흥동치기로 計算을 해봐도 (이것을 대략 計算을 해 보아도)

(例 2); 外國語

○ 軍隊序列에 있어서의 完全性 「인테리티」 라는 말 → 「인테그리티」

(101회 本會議 6次)

○ 어떤 「미닉스」 交換이라지 → 「미닛즈」 (101회 本會議 6次)

(例 3); 發音의 不正確

○ 우리 나뉘대로의 國防外交 → 北方 (101회 本會議 6次)

○ 이러한 경향도 想見되는 만큼 → 散見 (101회 本會議 7次)

또한 發言者의 誤讀도 誤聽 및 誤記의 原因이 되는데 이 경우 주어진 狀況與件이나 資料 등을 利用하고, 經驗者의 詰問이나 先例를 參照 訂正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 環境의 問題

會議現場의 環境은 速記에 있어 중요한 要素로 작용하는데, 報道陣들에 의해 徹底的한 記錄環境이 저해되거나 器械不良, 부적당한 速記席, 發言者外의 私談에 의한 소음, 同時發言 등의 저해요인은 誤聽과 誤記를 유발시킬 수 있다.

라. 高速發言의 問題

보통 사람의 말하는 速度는 平均 分當 280字 内外이나 會議時 發言者의 發言速度는 항상 일정한 速度가 아니고 緩急이 있기 마련으로 순간속도가 400字 以上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高速發言時에는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誤聽을 하거나 速記術 自體의 한계로 인한 速記文字의 草化나 融合現象이 생기 誤記되거나 최악의 경우 그 部分을 빠뜨리게 된다.

마. 專門用語 및 外來語 使用 時의 問題

速記業務는 1個 擔當室에서 2個 委員會를 擔當하는 것이 原則이나 業務量의 衡平上 他擔當室의 業務를 支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該當

專門用語가 生소해 誤聽 및 誤記를 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例 4) 專門用語

○ 비스會社를 統合시켜서 하나의 會社를 만들어 循環制를 하든지 → 乘換制(100回 豫決 6次)

○ 日本의 全防衛外交政策 → 全方位 外交(101回 本會議 6次)

○ 따라서 受託資金이라는 것이 → 輸特資金(101回 本會議 7次)

○ 權障時間(交遞)

○ 蹄耕法(農水産)

○ 支那附利(財務)

○ 法面工事(建設)

○ 擬律懲判(法司)

○ 救療給糧(保社)

○ 警備網取放(交遞)

(例 5) 新造語

○ 物質特許(經科)

○ 岸壁電話制度(交遞)

○ 冒險資本(Venture Capital; 經科)

○ 優良雌性不稔因子確保(農水産)

○ 知的所有權(文公)

○ 畫像會議(Tele Conferance; 交遞)

○ TQC技法(Total Quality Control; 綜合的 品質管理技法)

(例 6) 略語

○ 學自推 → 學國自律化推進委員會(文公)


○ 外表資金 → 外貨表示軍納資金(國防)

- 生保者→生活保護對象者(保社)
 - 集示法→集會 및 示威에 관한 特別措置法(文公)
 - 國響→國立交響樂團(文公)
 - 鐵勞→鐵道勞動組合(保社)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國際電氣通信聯合)
- International Typographical Union (國際印刷聯合)

3. 맺는말

以上에서 誤聽과 誤記의 原因과 事例를 대충 살펴 보았거니와 이 誤聽과 誤記의 問題는 人間の 能力的 한 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發生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憲政史를 記錄하는 歷史의 證人인 速記人들은 부단한 努力을 통해 誤聽 誤記가 거의 없는 會議錄을 發刊하려고 힘쓰고 있다. 또한 速記人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언제나 正確과 신속을 추구해가는 것이 부하된 責任을 銘心, 계속 연구와 훈련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速記人 스스로의 끊임없는 努力도 重要하지만 速記에 필요한 敎育 및 參考資料의 具備, 補助器機 등의 制度的 裝置와 關係部 署의 積極的인 協調風土 등이 확고히 뿌리내려질 때 그야말로 盡善盡美한 歷史의 記錄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速記文化도 찬연한 빛을 발하리라고 본다.



각테일파티의 대명사
國際産業

서울·本峯洞 汝矣島洞 44-26 중앙빌딩 208호
☎ 782-8471, 8472, 4641

이 희승을 찾으세요!
(국회속기사 양성소 8기졸업)

출장파티전문

개업식·결혼피로연·창립기념·성기총회·준공식·돛창회
·망년회·신년하례식·경양식·음료·커피 등 어떠한 행사
에도 출장하여 귀사의 스타일에 맞는 각테일 및 다과파티
를 주관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 速記採點基準과

INTERSTENO 英語速記採點基準과의 比較

國會速記6擔當室 提供
정리 ; 鄭 大 吉

I. 序

우리나라 速記採點에 관한 實情을 살펴보면 8.15 解放 이후 各種 速記士採用試驗에서도 採點基準이 設定되어 活用되고 있었겠지만 현재 資料로서 남아 있지 않아 그 당시의 것을 찾아 볼 길이 없고 十數年前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規程 第17條에 의하여 規定된 速記士 資格檢定試驗 採點基準만이 明文化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基準에 의해 그동안 採點이 되어 오면서 여러가지의 고려할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修正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維持되어 온 것은 우리 速記文化 發展에 不遜나마 장애요인이 아닐까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좀더 광범위하고 體系的인 그리고 보다 合理的인 採點基準이 시급히 作成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本稿에서는 지난 83年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INTERSTENO(이하 INT로 함)의 國際速記競技大會의 英語採點基準(regulations for the Shorthand Competit-

ions)과 우리의 採點基準을 比較하고 그 改善策을 研究해 봄으로써 보다 타당한 速記採點基準에 一助가 되고자 한다.

II. 韓國의 採點基準과 INTERSTENO採點基準과의 比較

1. 個別的인 (뜻에 영향을 미치는) 誤字 脫字의 경우 ; 큰 差異가 없음.

例) 우리나라 강은 얕다(원문)

우리나라 강은 깊다(변문)

한국이나 INT나 誤字, 1點 減點

2. 單語群 가운데 誤字, 脫字, 添字인 경우(뜻은 달리 할 때)

(1) 첫 單語인 경우

例) 소련의 정치체제(원문)

미국의 정치체제(변문)

한국이나 INT나 두 자가 誤字

(차이 없음)

(2) 두번째 單語인 경우

例) 속기 경연대회(원문)

속기 참가대회(변문)

한국 ; 두자가 誤字, 2點 減點

INT ; 2點 × ½ = 1點 減點(加重值)

를 적게 됨)

이것은 뜻이 비교적 크게 변치 않았기 때문에 고려된 것 같다.

3. 같은 뜻으로 매치된 單語

例) 우리나라 國民은 근면하다.

(원문)

우리나라 백성은 근면하다.

(번문)

한국; 두자가 誤字로 되어 2點 減點

INT; $2點 \times \frac{1}{2} = 1點$ 만 減點.

만일, 우리나라 國民은 근엄하다로 매분했다면

한국; 1字가 誤字로 되어 1點 減點

INT; 근면과 근엄은 뜻이 다르므로 2字가 誤字로 되어 2點 減點.

여기에서 우리나라 採點基準은 글의 의미보다는 그 外形을 中心으로 採點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添字, 脫字

例) 우리의 國會는 國民을 위해 있는가? (원문)

우리 國會는 國民을 위하여 있는가? (번문)

한국; 「의」가 脫字로 1點 減點, 「하여」의「하」가 脫字, 「어」가 添字로 되어 1點이 減點.

INT; 「의」는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減點. 「하여」도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減點한다.

例)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원문)

그럴 수밖에 만 방법이 없었습니다.(번문)

한국; 「다른 도리가」가 5字가 誤字, 5點 減點.

INT;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5點 \times \frac{1}{2} = 2點半$ 減點.

5.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單語群의 배열

例)조그맣고 지저분한 동네 (원문)

지저분하고 조그만 동네 (번문)

한국; 「지저분」과 「조그」만 得點으로 認定, 「맣고」 「한」은 脫字로 3點이 減點.

INT; 의미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5點 \times \frac{1}{2} = 2點半$ 減點.

6. 單語의 複數 單數 混用(뜻이 변하지 않는 경우)

例) 아름다운 산들은 (원문)

아름다운 산은 (번문)

한국; 「들」이 脫字로 1點 減點.

INT; 의미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減點.

7. 반복되어진 誤字

例) 근대화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근대화의 물결이…… (원문)

서구화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서구화의 물결이…… (번문)

한국; 4點이 減點.

INT; 2點만 減點.

8. 마침 부호의 處理.

마침표, 쉼표, 느낌표, 의문표, 불어없음표 등을 處理함에 있어서,

한국; 마침부호는 採點基準에서 除外되어 있음.

INT; 의미를 변하게 할 때 1字를

脫字로 處理, 의미를 변치 않을 때
 $1點 \times \frac{1}{4} = \frac{1}{4}點$ 을 減點으로 處理한다.

Ⅲ. 速記採點基準의 改善方案.

1. 「있」과 「없」

例)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원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없어야 한다.(번문)

종래 採點基準은 오직 1字만 誤字로 處理되어 1點 減點이 되지만 文章全體의 意味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이므로 加重値를 두어 $1點 \times 3 = 3點$ 減點으로 하여야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2. 添字의 處理(조사, 어미)

1) 조사의 취급

뜻이 변하지 않을 경우는 加重値를 적게 두도록 한다.

例) 순이뿐만 아니라 나도 간다.
(원문)

순이뿐만 아니라 나도 간다.
(번문)

이 경우에 종래 採點基準으로 하면 「이」字가 脫字로 1點이 減點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전체적인 意味에 있어서 큰 差異가 없으므로 加重値를 적게 두어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으로 減點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例) 국가의 권력이 너무나 강대
(원문)

국가 권력이 너무나 강대(번문)

이 경우에도 加重値를 적게 두어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減點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例) 우리나라 정책이(원문)

우리나라 정책이 대해(번문)

이 경우에 종래 採點基準인 첨자에 있어서 글자수로 계산하여 발언한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을 첨자로 한다는 기준에 의해 「에」가 誤字로 「대해」가 첨자로 處理되어 $1 \mid \frac{1}{2} \times 2 = 1\frac{1}{2}點$ 減點이 되어지나, 「이」字만 誤字로 處理하여 1點을 減點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2) 어미의 취급

例) 하고 있고(원문)

하고 있을 때에(번문)

이 경우에도 「을」이 誤字로 「때」가 첨자로 處理되어 $1 \mid 2 \times \frac{1}{2} = 1\frac{1}{2}點$ 減點이 되어지나 「있을 때에」 전체를 誤字로 處理하여 1點을 減點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3. 複數採點基準

例) 기리에는 사람들이 많다.(원문)

기리에는 사람들이 많다.(번문)

이 경우에도 加重値를 적게 두어
 $1點 \times \frac{1}{2} = \frac{1}{2}點$ 減點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4. 文章符號의 處理

1) 引號

例) 교수님 총장님이 누구십니까?
(誤)

교수님, 총장님이 누구십니까?
(正)

例) 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인 제안된 대안의 평가 및 ……(誤)

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안,
제안된 제안의 평가 및……(正)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심표가 없으므로 인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全體가 한눈에 들어오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심표가 빠뜨려진 경우에는 1字가 脫字로 된 것으로 보아 1點을 減點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2) 말없음표(…………)

例₁) 무신분은 사신신학을 낳고 사신신학은 인간이 물질을 활용하는 것은(誤)

무신분은 사신신학을 낳고 사신신학은…… 인간이 물질을 활용하는 것은(正)

例₂) 대통령이 지나갈 때 나무를 심고 지나가고 나면 뽑아 버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誤)

대통령이 지나갈 때 나무를 심고 지나가고 나면 나무를 뽑아 버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正)

이 경우에도 심표의 경우와 같이 1點 減點으로 處理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마진부호가 문장의 意味를 정확히 변하게 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基準의 애매성 때문에 쉽게 채택되어질 수 없는, 더욱 研究 檢討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思料되어지나 보다 훌륭한 文章이 만들어 질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볼만한 事項이기도 하다.

V. 結 語

이상에서 韓國速記 採點基準과 INTERSTENO의 採點基準을 比較해 보고 問題點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基準은 글자의 모양이나 형태에 너무 치우쳐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速記란 단순한 機械的인 손놀림만으로는 소기의 成果를 기대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速記士의 政治, 經濟, 文化, 社會의 全般的인 知識과 一般常識 그리고 文章力과 어휘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點을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의 종래의 採點基準은 言語의 형태 위주에서 意味를 중시하는 方向으로의 轉換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思料된다.

끝으로, 速記採點基準에 있어 本稿에서 지적되지 못한 여러가지 不合理한 點들도 있고 또 보다 合理的인 改善方案이 있을 줄로 믿어지는데 계속적인 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思料되어진다.



미국 하원의 속기현황

John R. Henterly

번역 ; 김 주 성

이 글은 1984년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제 35차 INTERSTENO 총회 보고서 내용중 일부로서 신진 미국의 속기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영어권에서는 영국하원은 의회의 모체라고 세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미국의회는 그 원에서 비롯된 하나의 소산물이다. 이 특별한 소산물은 이제 거의 200세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소산물은 모체의 행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가운데 차이점이 바로 회의장의 모습이다. 즉 미의회는 의석이 없고, 장관에 대한 질문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일한 유사점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예증하는 일화가 있다. 한 번은 두 영국인이 미하원 방청석에 있었는데 토론중이던 회의장에서 뜻하지 않던 표결상황이 벌어졌을 때 놀라기도 질서가 없음을 보았다. 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불빛은 흐려졌으며, 웃음 소리가 나고 이야기 소리는 회의장을 진동케 하여 모든 공식적인 행위가 멈추어지게 되었다. 한 영국인이 옆에 있던 영국인에게 “저 밑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들 중의 한 사람이 피신한 것이 아닐까?”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상원의 절차도 하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원의 기록 과실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1983년 1월 1일 현재 하원의 기록요원은 6명의 속기사, 6명의 빈문사(또는 타자수), 4명의 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의회가 그러하듯이 속기사는 교대로 일하게 되어 있는데, 10분간 기록한 후에 30분 동안 타이프쳐진 사본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다. 이 기록한 것을 전해 주는 시간은 “딕타폰 메모리 뱅크”라고 불리는 장치를 사용하여 단축되어진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속기사는 직접 타자수에게 불러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에 대고 기록한 내용을 구술한다. 이 구술은 회전테이프에 녹음되고 속기사가 구술하기 시작한 지 20초 안에 타자수

가 이것을 타자로 치게 된다. 이처럼 속기사와 타자수는 거의 지체됨이 없이 각자의 업무를 가장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다. 속기사는 구술을 끝내자마자 그때까지 타이핑된 원고를 교정보게 되고 그 동안 타자수는 타이핑을 완료하게 된다. 속기사는 구술하면서 문장을 문법에 맞추고, 의회적인 사용법으로 고쳐서 타이핑이 되도록 한다.

혹자는 그렇게 빨리 전달되어서야만 하는가고 묻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 오직 의회내에서만만의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즉 의원은 그의 발언을 읽고 그가 원하는 단어를 첨삭하고 혹은 그가 발언한 전체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발언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실제에 있어, 그는 다른 의원을 당황치 않게 하는 법위내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은 발언한 의원에 의해서 고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갖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원본인데, 이것이 의원들에게 배부되어진 다.

소위 발언을 수정하고 첨가하는 관행은 당황케 하거나 가끔 우스꽝스러운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몇번인가 사본이 분실되어져서 그 날밤 인쇄될 수가 없었다. 그중에 두드러진 예는 그 사본이 의원저택의 냉장고 안에서 이틀 후에 발견되어진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본은 우유와 달걀 사이에 있었다. 그 분은 어느 여성의원이었다.

속기사들의 교대제와 신속한 전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의사록은 산회후, 즉 한 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진다. 의회는 정해진 날 회의가 열리면 식사나 휴식시간도 없이 산회까지 계속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하루의 회의 시간은 1시간, 6시간, 14시간 혹은 그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근년에 가장 길었던 회의 시간은 37시간인 적도 있다. 그러나 통상처럼 원고는 산회 한 시간 후에 완료되어졌다.

이러한 직접적인 기록과정 외에 속기사에 있어 다른 분야의 활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의회의 절차처리 문제로서 의회의 의사절차는 더욱 복잡하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내에서 이 임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의회처럼 편집인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 각자가 의회의 의사절차규칙을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에 적용해야 한다. 행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쉬운데 이는 종종 말이 행해지도록 요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서 발언을 의회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회의가 끝난 후에 나는 다른 입법의 목적을 갖고 있는 많은 서류들을 훑어볼 것이다. 여기에는 수정안 동의안 청원 등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의

사절차를 검토하는 편집인들이 없으므로 속기사 각자가 자신의 업무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의회의 기록분야를 검토하기 위해 수석속기사를 교대로 배치해서, 필요하면 적절히 수정을 가한다. 그러나 의원의 발언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에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분은 매우 비좁고 사람이 붐비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한 속기사의 담당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빨리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자기가 기록하는 10분 동안 별개의 의회결정사항이 10분이나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교대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혹자는 편집요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회의 의사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하원내에서 아니 이 나라 안에서 한 사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보다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한 예외는 의회법학자(Parlliamentarian)라고 불리는 하원의 한 관리이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 인채되어져서 그의 사무실로 보내진 최종기록만을 검토하게 된다. 만일 그가 변경을 원한다면 속기사 사무실에 통보해서 후에 정정판에 수정되어질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인은 오늘 여기 오신 의회 속기사들이 미국의회와 자신의 의회에서 차이점과 중요한 점

을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급한 복잡한 의사절차에 직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이 우리는 오직 3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정년의 나이거나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양성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 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

이제까지 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재해 왔던 과정을 언급했는데 이제 그것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면에서 더 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미래의 상황을 살펴보자. 오늘 루체른 시간으로 6시에 하원이 열리게 된다. 기록직원 5명의 속기사로 구성되어진다.— 기계 속기사와 수필 속기사, 거기에 덧붙여서 “전자식기록기사”(electronic recorder-technicians)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원의 의사진행을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이용해 사본을 타이핑할 것이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녹음에 결함이 있다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록은 사라지게 된다. 이 체제는 원고작성과정을 둔화시키고 30분내의 원고작성개념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게다가 이 기

사들은 필요한 의회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항상 의회속기사에게 상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의회속기사가 사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녹음기사로 대체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얼마 후에는 의회의 사 절차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매일의 모든 의사록을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는데 그는 결코 사직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죽지도 않을 것으로 나는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 이 녹음기사가 속기사들보다 더싼 급료로 고용되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속담

에 “당신이 지불한 것만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하원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 것만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현재의 의회회의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의 지식을 엄청나게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이 체제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왜냐 하면 심한 불평들이 터져 나온 때 그 지식자들은 “우리는 너 이상 훈련된 속기사가 없소. 그래서 이러한 테이프시스템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군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이 쥔 수 없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 등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 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 (Counsellor) : 本協會 渉外部 Tel 7802-2472, 2474

젊은이여, 속기를 배우자

서 현대는 뭐든지 「最」자가 붙고 빠르다, 이런 語感이 실감나는 시대같아요, 최침단 최... 그리고 보면 오늘 저희가 “별이 빛나는 밤에” 진로지도 시간에 모신 윤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갖고 계신 속기를 하시는 속기사 한분을 모셨는데, 쓸데없는 말 또 입으로는 큰 소리 평평 치면서 나중에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는 척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겁이 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東友合同速記事務所에 1급 속기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金點東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서 오늘 속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우선 合同速記事務所란 뭐하는 곳이에요?

김 주로 속기를 하는 데입니다. 먼저 이 속기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주총회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그 회의적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발언하시는 분의 주장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

고 文字化함으로써 완벽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좌담회, 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 등의 회의록을 만들고,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록이 모든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 그러면 속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김 속기는 우리가 쓰는 제2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 제2의 문자?

김 네, 한글을 쓸 때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글 한 音節이나 한 마디에 대해 여러번 손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기는 한 음을 한 획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문자와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부호로 표시해 놓고 정리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쓰게 되는군요.

그런데 속기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한번 좀……

김 속기문자를 모르시는 분은 아랍글자같다고들 하는데 국어속기는 가, 나, 다……하 그 원리로 배 있고

일시 : 1985. 1. 8 (화) 밤 11:10 ~ 11:50

“ 별이 빛나는 밤에 ”

장소 ; MBC Radio 제작 1부 Studio

對談 서세원 : 김점동회원

요.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문자를 배우기만 하면 모든 데나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 (속기문자를 보며) 여기 요렇게 써 놓은 것은 뭐예요? 정말 아랍글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 쓰신거예요?

김 이것은 제가 이런 프로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밤 하늘에 빛나는 별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별이 더욱 초봉초봉 빛나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자 하는 얘기를 적은 것입니다.

서 그 긴 말이 상당히 짧네요. 전혀 몰라 보겠는데요! 그런데 속기를 배우려면 어디서 어떻게 배워요?

김 제가 좋은 기회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속기인들이 모여 있는 국회사무처 속기과를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 大韓速記協會가 있는데 여기서 속기의 대중보급을 위해서 1人1枝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피드 시대에 적응하는 필기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1년에 두번씩 겨울방학과여

름방학을 이용하여 3주간씩 속기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 3주면 속기에 대해서 눈 좀 뜨나요?

김 국어속기의 경우 그 기간이면 알기 심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일기는 우리가 책상속에만 넣어 두고 심지어는 자물쇠로 채우고 감춰 두지 않습니까? 또 남이 볼 것을 전혀로 엉터리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만 아는 문자를 하나 안다면 일기를 밥상 위에다 놓고 다녀도……

서 아무도 모르겠네요!

김 아무도 모르지요.

서 速記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속기가 만약 어렵다면 문자가 너무 단순해서 써 놓고도 읽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쉬워서 어렵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실제 속기를 할 때 회의석삼이나 강연회, 수업중에는 말씀하시는 분들의 발음이나 억양 또 정확치 못한 표현, 실내의 잡음, 울림말 등으로 해서 알아 듣기가 어려우면 속기하기가 어렵지요

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속기의 역사라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김 속기는 외국의 예가 훨씬 더
앞서지만 우리나라부터 먼저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9년 朴如日 선생께
서 하와이에서 조선속기법을 최초로
창안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후 일제
시대에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우리말 속기법식이 쏠
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군요.

그러면 외국의 역사는 얼마나 있었어요?
김 외국의 역사는 기원전 63년에
.....

서 기원전 63년이에요? /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

김 그때 로마에 시카르라는 대정
치가요, 웅변가가 있었는데 그들의 인
설을 속기한 것이 효시라고 합니다.
속기가 그때부터 쭉 발전해 오다가 오
늘날에 영어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Gregg식과 영국에서 사용되는 Pit-
man식이 있습니다.

서 그러면 속기와 녹음기의 차이점
과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김 많은 분들이 녹음기의 보급으
로 속기가 왜 필요하냐 하는 원칙적
인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속기는 말
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
고 녹음기는 그 말을 그대로 보존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를 가장 필
요로 하는 사람은 첫째로 글을 쓰는
사람과 학생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
에 빨리 필기를 해야 할 필요가 많
은 사람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문자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사람, 즉 문자
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속기가 필
요합니다. 듣고 이해만 하려면 속기하
지 않아도 되지요.

서 그렇군요. 음악을 그냥 즐기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창작이나 발전적
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하나
하나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속기를
하지 않고 녹음기애다 녹음을 했다가
다시 틀어 놓으면 역시 말의 속도와
똑 같습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녹음기
를 꺾다 꺾다 하면서 써야 되고 또
녹음기를 끄면 그 순간 멈추는 것이 아
니라 그 끈 상태에서 다시 켜면 으르
룩 하면서 다른 말로 넘어갑니다. 자
연히 비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시
간이며 녹음기에 대한 손상이며 능률
적이지 못한 데 대한 언짢음 등 이런
것을 보더라도 속기가 그 시간을 벌
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음기는 녹음하는 능
력뿐이고 그것을 문자화하는 데는 역
시 속기가 훨씬 빠르지요. 속기의 우
수성은 과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의회속기를 사람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 네, 속기사의 장래성은 대단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속기가 계속 발전하겠군요?

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창한 것같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이 가장 많이 아시는 곳이 국회입니다. 의정단상에서 토하는 열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나라 憲政의 처음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말 유니 나라는 1946년 12월 12일 12시에 개의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기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정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速記人들의 큰 자랑입니다.

서 정말 큰 자랑이네요.

우리나라 역사의 每페이지를 전부 속기로 정리를 하니깐……. 갑자기 부러운 생각이 드네요.

속기사가 그러면 하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김 속기사가 되려면 하력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 고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서 그러면 적성같은 것은 어때요?

김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같이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모든 면에서 빠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말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행동도 좀 느린 편

이고요.

서 그런데 속기는 빠르잖아요.

김 네, 그런데 속기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랬습니다.

서 사실 적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김 그렇지요. 손이 느리니까 이것을 배우면 빨리 쓸 수 있겠다든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지요.

서 그러면 속기사가 되려고 하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속기사가 되나요?

김 속기를 우선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속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정속회 4개소만 있지 하는 곳보다 私設에서 많은 책임을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되지 않는 속기학원에서 속기를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도 속기사 양성소가 있습니다.

서 네, 속기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 그것은 그때 당시 발표가 될 때 배우면 되겠네요?

김 그렇지요. 그런데 양성을 해서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개 채용시험을 거칩니다. 그래서 官에서 배운 사람 民에서 배운 사람이 뽕 뽕 모여서……

서 시험을 보게 되는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김 국회에서 업무할 수 있는 1급

속기사의 수준은 1분에 320자 이상의 속도입니다. 320자의 속도라는 것은 舌戰을 할 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서 말씀좀 막 할 때……

김 네, 말씀좀할 때가 320자입니다.

서 그런데 가끔 속기하시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속기의 보조기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 그러니까 기계를 우습게 아는 구만요? 여러분, 기계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전문속기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김 보수는 국회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에 준하고 다른 적보다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의장에 나가 속기를 할 때는 속기 1시간당 10만원~15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 대단하네요. 그럼 수업면에서도 꽤 좋고 상례성도 있고요.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녹음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손으로 속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기의 앞날이 밝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속 기 요 금 표

1982. 5.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100,000 원
녹 음 재 생	"	110,000 원
진 문 분 야	"	130,000 원
외 국 어 속 기	"	150,000 원
요 점 속 기	"	80,000 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삼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삼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사 단 법 인 대 한 속 기 협 회

이렇게 씁시다

※ 편집자 주 ; 원고 작성시 우리는 정확한 띄어 쓰기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가려뽑아 그 구별 요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1. “ㄴ바”와 “ㄴ 바”

“았[었, 였]더니” “~인데” “~는데”의 뜻이면 붙여 쓰고 방법이 나 일을 뜻하면 띄어 쓴다.

예 ①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여 본바 事實無根임이 판명되었고,

②-③ 勞務士教育은 同勞務士會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장치는 勞務士制度의 育成 發展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ㄴ데”와 “ㄴ 데”

“~이다, 그런데”의 뜻이면 붙여 쓰고 처소와 경우를 뜻하면 띄어 쓴다.

예 ① 최근에 소, 돼지 값이 回復勢를 보이다가 다시 담보상태인데, 價格回復에 대한 措置는 무엇인지,

② 土地利用率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異議가 없지만,

③ 아픈 데는 어루만져 주고 가려운 데는 긁어 주고,

3. “ㄴ지”와 “ㄴ 지”

막연한 의문이면 붙여 쓰고 어느 기간의 뜻이면 띄어 쓴다.

예 ①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

② 그가 故國을 떠난 지 3년째가 됩니다.

4. ~대로,

붙여 씀이 원칙이나 語尾에 붙는 것은 불완전명사로 보고 띄어 쓴다.

예 ① 멋대로, 그대로, 나는 나대로

② 원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5. ~만큼

조사로 쓰이거나 이유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고 분량, 정도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

예 하나의 요식행위이니만큼 (이유)

하나의 요식행위인만큼 (이유)

먹은 (을) 만큼 (분량, 정도)

속기계 이모 저모

(1984. 2 ~ 1985. 1)

— 설 외 부 —

INTERSTENO 중앙위원회

1984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북단인 폴란드 국경지역에 인접해 있는 타토리코지의 휴양지인 타트란스카 로미니차에서 INTERSTENO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의 중앙위원회는 83년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개최되었던 제 35회 대회의 보고와 85년 7월 13일부터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될 제 36회 대회의 대회의제, 경기의 규칙, 심사원, 출제와 다음번 중앙위원회 대회의 개최지 선정 등이 토의되었다.

현재 구미선진국은 타이프라이팅 분야에서는 수동타이프 전동타이프를 지나 이제는 전자타이프가 성행하고 있으며 속기계는 미국과 유럽의 영어권지역은 압도적으로 속기타이프라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유럽의 '영어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속기계의 연구가 한창인 불가리아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의외로 수필속기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토대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구미속기계의 개황

미국은 의회와 법원속기에 종사하고 있는 속기사가 약 1만 2,000명이며 그 중 약 8,000명이 속기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하는 속기사라고 한다.

그외에 저널리스트나 비서, 교사등은 주로 수필속기를 사용하며 일상업무에서 속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미국에서는 약 500만명 가까이가 속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 힘을 쏟지 않고 있으며 기계 (과학기술의 진전) 보다도 인간 (문화와 생활) 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

동구권의 불가리아는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는바 속기타이프라이터는 없고 속기머신 즉 말의 빠르기로 문자를 칠 수 있는 타이프라이터의 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국회에서는 이 기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1979년의 베오그라드대회에서 불가리아는 이 머신으로 세계속기 챔피언경기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수필속기, 속기타이프라이터와는 다른 부분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83년 루체른대회에서는 위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이탈리아 국회속기사인 브루크베리박사가 속기타이프라이터로 챔피언이 되었으며 2위와 3위는 불가리아의 여성속기사(속기머신 이용) 4위와 5위는 서독과 폴란드의 선수가 수필속기로 차지했고 6위는 동독이 속기타이프라이터로 차지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잡지사 출판사와 각종단체나 회사 등에서 속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잡지나 출판물 등에서 좌담회나 대화능에 속기가 취급되지 않고 있다.

주로 미국은 법정 속기, 유럽은 의회속기라고 하며 따라서 속기기능을 활용하는 주류는 비서 서널리스트 교사 등이다.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유럽속기계의 대표자들의 명함에서는 주로 Dr. (박사) 라는 직함을 볼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회속기사들이다. 때로는 prof. (교수) 라는 직함이 붙어 있기도 하다. 순수한 속기사의 직함은 일반적으로 Stenog. 로 사용되고 있다.

朴權欽회장, 새세대심장재단에 성금전달

한국서화작가협회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본협회 박권훈회장은 84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선천성 심장판막증 어린이 수술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서화전을 世宗文化會館에서 가졌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술로 심장병 어린이를 활기차고 푸르른 새생명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열렸던 이번 서화전은 아낌없이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의 열의와 사회 각계의 정성에 힘입어 총 1억4,505만원의 기금을 마련, 새세대심장재단에 전달되었다.

속기강습 수강현황

제 34 회 동계 무료속기강습 (84년 1월 11일~1월 31일) 과 제 35 회 하계 무료속기강습 (7월 18일~8월 6일) 이 서울의 동방, 고려 兩學院에서 각각 실시되었는바 그 수강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 계)

언어 \ 내용	접수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
국어	714	452	63
영어	231	121	52

(하 계)

언어 \ 내용	접수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
국어	157	115	73
영어	67	46	68

海外出張

1. 姜宗遠회원 (84.3.31 ~ 4.18) ; 韓·濠洲議員親善協會使節團수행 (호주, 뉴질랜드-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경유)
2. 權龍太회원 (84.4.13 ~ 5.1) ; 美國議會制度시찰 (미국-캐나다, 일본경유)
(84.7.17 ~ 8.1) ; LA올림픽參加 (미국-캐나다, 멕시코경유)
3. 崔錫模회원 (84.5.8 ~ 5.24) ; 韓·모로코議員親善協會使節團수행 (모로코, 아랍에미리트연합국-불란서, 이태리, 스위스경유)
4. 宋基喆회원 (84.5.16 ~ 6.4) ; 韓·伊修交 100주년記念使節團수행 (이태리-이집트, 그리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경유)
5. 成千永회원 (84.7.16 ~ 7.23) ; '84 Captive Nation Week 行事參席 (臺灣-홍콩, 일본경유)
6. 崔明淑회원 (84.8.27 ~ 9.6) ; 特別研修 (홍콩, 대만, 일본)

研 修

1. 姜宗遠회원 (84.7.2 ~ 12.21) ; 한국외국어대학 어학생활관 (16期)
-外國語 (英語) 研修

2. 金致元회원 (84.8.21 ~ 12.20) ; 美國하와이대학—海外研修

表 彰

崔浣洙회원 ; 대통령표창 (85.1.4)
趙隅石회원 ; 국회의장표창 (85.1.4)
玄柄高회원 ; 국회의장표창 (85.1.4)
河良培회원 ; 국무총리표창 (85.1.4)
趙東植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5.1.4)
徐平吉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5.1.4)
盧莊愚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5.1.4)
金炳珉회원 ; 국무총리표창 (84.12.28)

新入會員

金德鎭會員 ; 국회사무처속기과 (84.10.1)

會員動靜

(1) 死 亡

金天漢회원 (84.11.30)

(2) 停年退職

金允洙회원 (84.6.30)

(3) 辭 職

吳光雄회원 (84.10.2)

(4) 轉 出

金鍾喆회원 (84.12.20) ; 농수산부 국립생사검사소

(5) 轉 補

崔錫模회원 ; 경위과장 → 문공위입법조사관 (84.2.11)

金爽起회원 ; 총무과 → 건설위원회 (84.2.13)

李泰鎬회원 ; 내무위 → 기획예산담당 (84.2.13)

徐秉運회원 ;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과장 → 국회도서관 자료발간과장 (84.3.1)

李東一회원 ; 관리과장 → 내무위입법조사관 (84.9.1)

結 婚

金珠成회원 (84.5.3) 韓順德회원 (84.5.20) 金鋼洙회원 (84.6.23)

金彩榮회원 (84.9.1) 姜秀憲회원 (84.9.22) 李蓮姬회원 (84.10.27)

趙信子회원 (84.11.4)

會 務 日 誌

-- 1984 년도 --

- 1. 11 ~ 31 제 34 회 동계 속기 무료강습
- 1. 21 제 122 차 이사회
- 1. 28 제 17 회 정기총회 (INTERSTENO 가입공로자 공로패 수여)
- 2. 10 法人정기보고서 제출 (문공부)
- 5. 10 제 36 차 국제속기타자연맹불참 통보
- 5. 11 INTERSTENO 年會費 265,000 납부
- 6. 22 제 123 차 이사회
- 7. 18 ~ 8. 6 제 35 회 하계 속기 무료강습
- 12. 21 제 124 차 이사회
- 12. 28 1984 년도 속기인 송년회 개최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좌 (532689)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1,000 원 (年 12,000 원) 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 집 후 기

速記界, 또 하나의 나이트를 긋는다. 薄土에 뿌리 내린 나무일지라도 가꾸는 이의 정성 여하에 따라서는 巨木으로도 자랄 수 있나니.

오늘 25개째의 얇은 나이트를 그으면서 다음에는 큼직한 나이트가 되기를 기원한다. -宋-

Vision? 긍지? 사명감? ……………?

창밖에는 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린다. 온갖 것을 一色으로 덮어 주는 눈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다.

저 눈 덮인 나무가지 끝에도 봄은 준비되어 있는데 ……., -杓-

우리가 살아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은 불안한 미래를 안심시켜 주는 지렛대이며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기 때문.

우리 속기계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열심으로 뛰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株-

호흡과도 같은 時間!

삶을 향한 열던 호흡은 숨가쁘게 우리를 내물건만 늘 새롭게 태어나게 깨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되듯 速記界를 사랑해 주소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밝은 미래를 향해 달음박질한다.

-曹-

雪衣를 걸치고 은으로 빛나는 나무와 함께 겨울은 심심하다.

속기계의 편집은 이 심심함 속에서 이루어졌고……

야호! 그러면 속기계는 은으로 빛날 수 있겠군?

-蘭-

速 記 界 第 25 號

1985 年 2 月 9 日 發 行

發行人 朴 權 欽
編輯人 宋 基 喆

社 團 法 人 大 韓 速 記 協 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 ~6

非 賣 品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65) 4266

*** 創立 37 周年**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1. 本科 4 個月
- 1. 研修科 1 年
- 1. 資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科 3 個月
- 1. 研修科 6 個月
- 1. 資格 高卒以上

修了後

立法院,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僑事, 留學時的筆記 및 아르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進出 容易.

高麗速記學院

Tel 392 ~ 5373

春川 52 - 9714 清州 4 - 1438 大田 72 - 3449

한글速記科

- 本科 3 個月
- 研修科 9 個月
- 資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本科 2 個月
- 研修科 6 個月
- 資格 初大卒以上

修了後

國會, 法院, 情報機關, 言論報道機關, 外國人僑事, 外國銀行 留學時的筆記 및 副業 等 社會進出 容易